

어머니의 성취압력과 정서적 지지가 청소년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Maternal Achievement Pressure and Emotional Support on Adolescents' Achievement Motivation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석사 구현경**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아동학협동과정

교수 도현심***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협동과정

겸임교수 최미경

Dept. of Consumer Science and Human Development, Ewha Womans Univ.

Master : Koo, Hyun-Kyung

Dept. of Psychology/Interdisciplinary Program in Child Development & Intervention, Ewha Womans Univ.

Professor : Doh, Hyun-Sim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Child Development & Intervention, Ewha Womans Univ.

Adjunct Professor : Choi, Mi-Kyung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maternal achievement pressure and emotional support on adolescents' achievement motivation. A total of 241 adolescents in the second grade of two middle schools in Seoul and their mothers participated in the study, and completed questionnaires on mothers' achievement pressure and emotional support. Adolescents also answered a questionnaire on achievement motivation. Sohn's(1997) Achievement Pressure Scale, Sung's(1993) Social Support Scale and Hermans'(1970) Prestatie Motivatie Scale were used for this survey. Data were analyzed by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t*-tests, regressions, and one-way ANOVA with Duncan's multiple range tests. Results showed that maternal achievement pressure and emotional support and adolescents' achievement motivation did not vary as a function of sex. Maternal achievement pressure and emotional support had positive effects on achievement motivation of adolescents, and maternal achievement pressure played a more influential role on the motivation of adolescents than emotional support. Among four groups divided by the level of maternal achievement pressure and emotional support, high/high, high/low, low/high, and low/low, adolescents in the high/high group were perceived to have the highest achievement motivation. Findings suggest that both maternal achievement pressure and emotional support are important in improving adolescents' achievement motivation.

▲주요어(Key Words) : 성취동기(achievement motivation), 성취압력(achievement pressure), 정서적 지지(emotional support)

* 본 논문은 석사학위 논문 중 일부임.

** 주저자 : 구현경 (E-mail : juicymusic@naver.com)

*** 교신저자 : 도현심 (E-mail : simdoh@ewha.ac.kr)

I. 서론

성취동기는 장애를 극복하려 하고, 어려운 일을 가능한 한 조속히 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려는 욕망 또는 경향으로 정의된다(Murray, 1938). 성취동기가 높은 사람은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얻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직업을 갖는 경향이 있다(McClelland, 1953; Stein & Bailey, 1973) 개인의 실제 성취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특히 한국인의 성취동기는 세계 여러 민족들 중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미국의 한국계 청소년과 그 부모들은 중국계, 필리핀계, 멕시코계, 백인, 흑인들을 제치고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적 기대를 나타내기도 하였다(Hao & Bonstead-Bruns, 1998).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에서도 초, 중, 고, 대학생은 양육태도의 여러 요인들 가운데 부모의 성취지향성을 가장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박영신 · 김이철, 2000).

특히, 미래의 진로를 설계하고 이를 위해 구체적인 향후 진학 계획을 세우는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은 학교나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청소년 스스로도 다가오는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며 학업적인 성취에 민감해질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성취동기는 성취를 향한 강력한 원동력으로서 그 영향이 주목된다. 게다가, 문화적인 차이로 인하여 국내 청소년의 성취동기 발달이 국외의 경우와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발달과정에서 의미 있는 심리적 변인으로서 성취동기에 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성취동기는 유능감, 내외통제성 등의 개인 내적 변인 및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양육행동 등의 환경적 변인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된다(이경남, 2006; 이운경 · 도현심, 2005). 특히, 환경적 변인으로서 개인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가정환경 변인은 그 영향력이 크며, 그 중 부모의 양육행동은 대표적인 환경 변인으로 주목된다.

한편, 성취동기를 주제로 한 연구들은 성취에 관심을 둔 경향이 있으나 이와 관련된 연구결과는 다소 비일관적이어서, 성취가 발견되는가 하면(김보경, 2001; 김지혜, 2009; 민숙정, 1990; 이경남, 2006; 이경은, 2005; 정갑순, 2002; Alper & Greenberger, 1967; Field, 1951; French & Lesser, 1964; Stein & Bailey, 1973)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권혜경, 2004; 김현정, 2000; 전복희 등, 2008; 주연진, 2009; Castenell, 1983). 성취를 발견한 연구들 가운데는 그 결과가 상반되어, 남아의 성취동기가 더 높거나(김보경, 2001; 민숙정, 1990) 혹은 여아의 성취동기가 더 높은 것(김지혜, 2009; 이경남, 2006; 이경은, 2005; 정갑순, 2002)으로 보고된다.

학업성취를 목적으로 아동에게 특수한 포부를 설정해주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활동하기를 기대하고 그 능력을 평가하여 결과에 대한 보상을 주어 아동이 부담을 느끼게 하는 환경적 요인인 성취압력(손낙주, 1997)은 성취동기와 관련되는 변인으로 연구되어지고 있다. 성취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가정의

자녀는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내도록 통제와 요구를 받으면서 부모로부터 성취압력을 경험하기 쉬운데, 특히 동양 문화권에서는 자녀에 대한 교육적 기대가 크고(Goyett & Xie, 1999; Hao & Bonstead-Bruns, 1998; Stevenson et al., 1990) 능력보다는 노력이 성취결과에 더 큰 기여를 한다고 믿는 경향이 있어(Luster & Okagaki, 1993; Stevenson et al., 1986) 성취압력이 흔하게 나타날 수 있다.

국내에서는 대체로 부모의 성취압력이 아동의 성취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부모의 성취압력을 높게 지각한 청소년은 높은 성취동기(김경옥, 1992; 박영신 등, 2004)와 학습 및 학업동기(김현심, 2002; 전경진, 2007), 숙달목표(황혜연, 2006)를 가지고 있었으며, 성취를 강조하는 양육태도는 남녀 청소년의 성취동기를 높였다(이경남, 2006). 이러한 경향은 국외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발견되어, 성취압력이 너무 낮을 경우 자녀의 발달결과는 부정적이었다. 즉, 부모가 자유방임적이고 무관심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면 청소년 자녀는 수학 문제를 완성할 때 자기향상의식과 도전극복의식이 부족한 경향이 있었고(Gonzalez & Wolters, 2006), 청소년 자녀에 대한 수용과 참여도가 낮고 엄격하지 않으며 관리가 소홀하면 자녀는 학교에서 낮은 성적을 얻고 학업능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Lamborn et al., 1991).

그러나, 몇몇 국외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성취압력은 아동의 성취동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부모가 자녀의 잘못에 대해 비판하고 창피를 주는 등 강한 통제를 하면 이러한 메시지가 아동에게 내면화되어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릴 수 있으며(Rigby et al., 1992), 부모가 학업성적을 더 잘 받도록 하기 위해 학령후기 자녀에게 강요하고 통제하며 물질적인 보상을 주는 방법을 사용하면 자녀의 성적은 좋지 못하고 내적 동기도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Bronstein et al., 2005). 이처럼 국외와 국내의 연구결과에서 발견되는 차이는 문화적 차이에서 기인할 수 있는데, 실제로 한국 청소년들은 부모의 엄격한 통제를 온정과 관심으로 받아들임으로써(Rohner & Pettengill, 1985), 어머니의 통제를 거부적으로 인식하는 미국 학생들(Saavedra, 1980)과는 다소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부모의 성취압력이 우리나라 청소년의 성취동기에 긍정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한다.

청소년의 성취동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모의 성취압력 역시 성취가 다소 비일관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면, 성취압력은 자녀의 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 전통적으로 부모는 딸보다 아들에게 성취를 더욱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진다(정미리, 1985; Block, 1983).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박수자, 1996; 정소희, 2005; 정지선, 2007; 조희진, 1982)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전경진, 2007; 조혜미 등, 2007) 국내연구들은 남아가 여아보다 부모의 성취압력을 높게 지각한 것으로 밝힌 바 있다. 이와 다른 국외연구결과도 보고되어, 부모는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에게 더 높은 교육적인 목표와 가치를 설정하였다(Spera, 2006). 그러나 국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은희, 2008)와 미국 북동부의 상류층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Luthar & Becker, 2002)에 따르면, 부모가 아들과 딸에게 학업과 사회적 성취를 강조하는 정도에는 차이가 없었다.

부모의 성취압력과 함께 부모의 정서적 지지 역시 성취동기와 관련된 양육행동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 사회적 지지가운데 하나인 정서적 지지는 돌봄과 사랑을 받고 있다고 믿게 하는 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Cobb, 1979), 부모의 정서적 지지는 아동의 발달결과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부모가 자녀의 과제수행을 긍정적으로 고무하고 지지할 때 아동은 어려운 과제에 부딪혔을 때에도 안정감을 가지고 과제해결을 즐기며 이를 해결하려는 자신감이 높았으며(Connell et al., 1994), 부모가 자녀에게 온정적이고 수용적이며 성취를 격려하고 지지할 때 아동의 성취동기는 높았다(Glasgow et al., 1997). 반면, 자녀가 과제에 실패했을 때 부모가 이를 처벌하거나 성공을 인정해주는 데 인색하면, 아동은 과제를 두려워하고 낮은 성취동기를 보였다(Burhans & Dweck, 1995). 부모의 정서적 지지와 아동의 성취동기 간의 직접적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정서적인 지지를 높게 지각한 청소년은 성취동기가 높았으며(이운경 · 도현심, 2005), 아버지와 어머니의 높은 정서적 지지는 학령기 남녀 아동의 높은 성취동기와 관련이 있었다(이경님, 2006). 이처럼 부모가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격려를 해주면 자녀는 신뢰감을 바탕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게 되며, 성취를 이뤄냈을 때는 부모로부터 많은 정서적인 보상을 받게 됨으로써 성취욕구와 동기를 더욱 발달시키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부모의 정서적 지지와 성취동기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알아본 국내 연구는 소수에 그치고 있으며, 연구대상에 있어서도 기존 연구들은 고등학생(이운경 · 도현심, 2005)과 학령기 아동(이경님, 2006)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청소년 초기에 속하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성취동기와 부모의 성취압력의 경우와 유사하게, 부모의 정서적 지지 역시 자녀의 성에 따른 차이가 다소 비밀관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는 대체로 아들보다 딸에게 더 많은 온정성과 정서적 지지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학령기와 청소년기의 딸은 아들보다 부모의 양육행동을 더 온정적, 지지적으로 지각하였으며(김문정, 2003; 오성심 · 이종승, 1982; 조희진, 1982; Kenny, 1994), 청소년기 딸은 아들보다 어머니를 더 신뢰할 수 있으며 친밀한 존재로 느꼈다(Luthar & Becker, 2002). 또한 뉴욕의 대학교 2학년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부모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더 자주 요청하고, 이에 대한 도움을 더 많이 받았으며, 부모가 정서적인 지지를 나타낸 총 횟수도 많았다(Valery, O'Connor & Jennings, 1997). 이처럼 부모의 정서적 지지가 딸에게 더 집중되는 것은

아들이 정서적 지지보다 과제 중심적이고 도구적인 도움을 더 유용하게 인식하기 때문일 수 있다(Moran & Eckenrode, 1991). 그러나 몇몇 연구결과는 이와 달리,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나 어머니의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행동에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김순혜, 2003; 이선희 · 도현심, 2007).

지금까지 다양한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부모의 양육행동에서 성취압력과 정서적 지지는 아동의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모의 성취압력과 정서적 지지가 아동의 성취동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그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연구는 드물며, 현존하는 몇몇 연구들은 그 결과가 일치되지 않는다. 먼저 부모의 정서적 지지가 성취압력보다 자녀의 성취동기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주장하는 연구들은, 부모의 지원이나 애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성취동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만 부모의 성취지향성이나 통제적 양육태도는 보다 낮은 영향력을 나타낸다고 주장하는 연구들(김의철 · 박영신, 1999; 박영신 · 김의철, 2000)이 있는 반면, 부모의 성취압력이 정서적 지지보다 아동의 성취동기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하는 연구들도 나타나 익애적이고 허용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부모의 청소년 자녀는 학교 성적이 그리 뛰어나지 못하며 책임감과 독립심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Bee, 2000; Maccoby & Martin, 1983; Steinberg et al., 1992).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성취지향적인 관여가 온정성보다 자녀의 성취동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일 가능성을 제시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성취압력과 정서적 지지가 청소년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조사하여 청소년의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이 무엇인지 밝히고자 한다.

한편, 부모의 성취압력과 정서적 지지는 양육행동의 주축인 온정성 및 통제성 측면에서도 접근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성취압력은 Schaefer(1959)의 양육태도 차원에서 많은 규율과 금지를 제시하고 강요하는 엄격한 태도인 통제와 Baumrind(1973)의 양육태도 차원 중 기대수준과 명확한 규칙성, Maccoby와 Martin(1983)의 통제성 측면에서, 그리고 정서적 지지는 Schaefer(1959)의 애정 차원, Baumrind(1973), Maccoby와 Martin(1983)의 온정성의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접근할 때, 부모의 성취압력 및 정서적 지지는 각각 그 고저에 따라 두 가지 요소가 모두 높거나(상-상) 낮은(하-하) 유형과 두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가 높은(상-하, 하-상) 유형 등 모두 네 가지로 유형화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네 집단을 Maccoby와 Martin(1983)에 근거하여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즉, 성취압력과 정서적 지지가 모두 높거나 낮은 집단은 각각 권위 있는(혹은 민주적) 양육 유형과 방임적 유형, 성취압력은 높으나 정서적 지지가 낮은 집단은 권위주의적 유형, 그리고 성취압력은 낮으나 정서적 지지가 높은 집단은 허용적(혹은 익애적)

유형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부모의 성취압력과 정서적 지지를 각각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관련시켜 살펴본 경향이 있어 이러한 유형화에 따른 청소년의 성취동기에서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는 매우 드물다. 몇몇 안 되는 연구들에 의하면, 통제성과 온정성의 요소가 모두 높은 권위 있는 부모를 가진 아동은 자신감이 있고 성취 지향적이며 높은 학업성적을 나타내었다(박현정 · 이경님, 2005; 홍성훈 · 도현심, 2002; Crockenberg & Litman, 1990; Weiss & Schwartz, 1996). 또한, 허용적 가정의 청소년들은 사회적 능력과 자아개념은 높지만 학업태도는 낮게 나타나는 등 긍정적 및 부정적 적응의 혼합된 결과를 보여준다(Lamborn et al., 1991). 또한, 방임형 부모의 경우 청소년의 적응에 있어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낸다고 지적하고 있다(박현정 · 이경님, 2005).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부모의 성취압력 및 정서적 지지를 근거로 구분된 네 가지 양육행동 유형에 따라 청소년의 성취동기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는 부모-자녀관계 중에서도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는 어머니가 여전히 대부분의 가정에서 주양육자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보다 자녀의 일상생활에 더 많이 관여하여 정서적으로 더 많은 지지(Thompson & Walker, 1989)와 성취압력(박수자, 1996; 전경진, 2007; 조희진, 1982)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이 평가자에 따라 다르다는 선행 연구결과들(김성연, 1981; 윤지은, 2003; 정윤주, 2002)에 근거할 때 어머니의 성취압력과 정서적 지지가 청소년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또한 어머니와 자녀의 지각에서 서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머니 자신은 자녀에게 적절한 수준의 성취압력과 풍부한 정서적 지지를 표현한다고 느낄지라도 이를 받아들이는 자녀의 입장에서 이를 과도하거나 부족하게 느낄 경우 각 변인이 청소년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력은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어머니 보고와 청소년 보고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하며, 이를 통해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 중 누구의 지각이 청소년의 발달결과와 보다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지도 확인해 보고자 한다. 요약하면, 본 연구의 주목적은 청소년의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성취압력 및 정서적 지지를 중심으로, 각 변인에서의 성차를 비롯하여, 어머니의 성취압력과 정서적 지지가 청소년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이다. 또한 어머니의 성취압력과 정서적 지지의 정도에 따라 유형화된 각 집단 간 성취동기의 차이도 규명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성취압력 및 정서적 지지와 청소년의 성취동기는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성취압력 및 정서적 지지가 청소년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어머니의 성취압력 및 정서적 지지 정도에 따른 집단별 청소년의 성취동기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소재의 2개 남녀공학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241명의 남녀 청소년들(남자: 137명, 여자 104명)로서, 청소년 자신과 그들의 어머니가 조사에 참여하였다. 연구의 대상을 중학생으로 선정한 이유는 이 시기에 부모의 성취압력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오정현, 2005), 그로 인한 영향력을 살펴보기에 적절한 연령층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 대상의 대략적인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부모의 교육 수준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대학교 졸업이 각각 38.2%와 35.3%로 가장 많았으며, 부모의 직업은 아버지는 회사원, 은행원, 공무원(42.3%)이, 어머니는 전업주부(42.7%)가 가장 많았다. 가정의 경제수준에 대해서는 전체의 51.5%에 속하는 청소년들이 중류로 지각하고 있었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어머니의 성취압력 및 정서적 지지, 청소년의 성취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구성된 질문지이다. 어머니의 성취압력 및 정서적 지지는 어머니와 청소년 모두에 의해 평가되었으며, 청소년의 성취동기는 청소년 자신에 의해 평가되었다.

1) 어머니의 성취압력

어머니의 성취압력은 손낙주(1997)의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이남기(1995)의 “성취압력척도”와 김기정(1984)의 “부모-자녀관계 척도”, 운영섭(1988)의 “부모관심도 검사”문항들을 참고하여 제작되었다. 학령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손낙주(1997)의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척도 제작에 활용된 상위 연구들이 초등학교생부터 고등학교생까지의 광범위한 연령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학령기부터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무리 없이 적용될 수 있는 문항들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원척도의 하위요인은 학업활동에 대한 부모의 관심(자녀가 공부에 전념하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압력을 행사함), 학업성적에 대한 압력(자녀에게 우수한 학업성적을 기대하고 압력을 행사함),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포부(미래 자녀가 성공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기를 기대함), 학업성적을 위한 강한 제재(학업을 위해 자녀의 일상을 통제함) 등 4가지(총 20문항)로 구성되었다. 손낙주(1997)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신뢰도를 낮추는 한 문항(14번)을 제외하였으며, 각 하위요인들의 신뢰도가 낮아 모든 문항들을 합하여 하나의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어머니용 질문지는 청소년용 질문지를 어머니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였다. 문항의 예를 들면, 청소년용 질문지의 ‘우리 어머니는 오직 공부밖에 모르신다.’, ‘우리 어머니는 내 공부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신다.’와 같은 문항들은 어머니용 질문지에서는 ‘나는 오직 아이의 공부밖에 모른다.’, ‘나는 아이의 공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한다.’와 같이 수정하였다. 또한, 원 척도에서는 5점 Likert식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보다 분명한 답을 이끌어내기 위해 ‘거의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로 구성되는 4점 Likert식 척도로 수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성취압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에 의해 산출된 신뢰도는 청소년용과 어머니용 각각 .85와 .86이었다.

2)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는 박지원(1985)을 기초로 한 성영혜(1993)의 척도 가운데 ‘정서적 지지’에 관한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내가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신다.’, ‘내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일 때,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신다.’ 등의 총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소년의 정서적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어머니의 사랑, 공감, 이해, 격려, 신뢰, 관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어머니의 성취압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머니용은 청소년용을 어머니 입장에서 답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이 척도는 ‘거의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로 구성되는 4점 Likert식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에 의해 산출된 신뢰도는 청소년용은 .90, 어머니용은 .84였다.

3) 청소년의 성취동기

청소년의 성취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Hermans(1970)의 성취동기검사(Prestatie Motivatie Test)를 홍성훈·도현심(2002)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29개 문항의 자기보고 방식에 의한 검사로 원 척도는 총 10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홍성훈·도현심(2002)은 대부분의 요인의 신뢰도 수치가 $\alpha=.61$ 이하로 너무 낮게 산출되어 모든 문항을 하나의 요인으로 취급하였다. 문항의 예로는, ‘내가 나의 학업에 세우는 기준은 높다.’, ‘숙제를 시작하는 것은 힘들다.’ 등이 포함된다. 이 척도는 ‘거의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식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성취동기가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는 .80이었다.

3. 조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조사는 2007년 10월 중에 실시되었다. 연구자가 2개의 남녀공학 중학교를 방문하여 교사에게 질문지 응답 요령을 설명한 후 각 학급의 학생들에게 배부하고 어머니용 질문지는 학생들을 통해 배부·회수되었다. 배부된 질문지는 배부 후 1주일 뒤에 연구자가 학교를 재방문하여 회수되었다. 배부된 400쌍(각 학교당 200쌍)의 질문지 가운데 청소년용과 어머니용이 모두 회수된 것은 337쌍(회수율: 84.3%)이었다. 이들 중 응답이 불성실한 질문지 94쌍,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가 동거하지 않는 2쌍을 제외한 241쌍의 질문지를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PC program 15.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고, 각 변인들에서 성차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으며 성취압력과 정서적 지지가 청소년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성취압력과 정서적 지지 정도에 따라 구분된 집단 간 성취동기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과 Duncan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예비분석

본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성취압력은 어머니가 지각한 어머니의 성취압력($r=.40, p<.001$), 청소년의 성취동기($r=.22, p<.01$)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r=-.29, p<.001$)와는 유의한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어머니가 지각한 어머니의 성취압력은 어머니가 지각한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r=-.20, p<.01$)와 유의한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또한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는 어머니가 지각한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r=.22, p<.01$), 청소년의 성취동기($r=.18, p<.01$)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표 1> 참조). 이와 같이, 연구변인들의 전반적인 상관관계에 따르면, 청소년은 어머니의 성취압력 및 정서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성취동기가 높았으며 어머니의 성취압력을 많이 받을수록 정서적

<표 1> 연구변인들의 상관계수, 평균 및 표준편차

(N=241)

변 인	1	2	3	4	5
1.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성취압력	-				
2. 어머니가 지각한 어머니의 성취압력	.40***	-			
3.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	-.29***	.00	-		
4. 어머니가 지각한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	-.04	-.20**	.22**	-	
5. 청소년의 성취동기	.22**	.13	.18	.09	-
M(SD)	2.23(.44)	2.18(.36)	3.00(.60)	3.15(.38)	2.72(.30)

** $p < .01$, *** $p < .001$.

<표 2> 어머니의 성취압력 및 정서적 지지가 청소년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독립변인	B	β
■ 청소년 보고		
어머니의 성취압력	.20	.30***
어머니의 정서적지지	.13	.26***
R ²	.11	
F	14.48***	
■ 어머니 보고		
어머니의 성취압력	.12	.15*
어머니의 정서적지지	.09	.12
R ²	.03	
F	3.49*	

* $p < .05$, *** $p < .001$

지지는 낮게 지각하였다.

2. 어머니의 성취압력 및 정서적 지지와 청소년의 성취 동기의 성차

어머니의 성취압력 및 정서적 지지와 청소년의 성취동기가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의 성취압력(청소년 보고: $t=1.38, p>.05$, 어머니 보고: $t=.82, p>.05$) 및 정서적 지지(청소년 보고: $t=1.10, p>.05$, 어머니 보고: $t=-1.48, p>.05$)와 청소년의 성취동기($t=.47, p>.05$) 등 모든 연구변인에서 유의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3. 어머니의 성취압력과 정서적 지지가 청소년의 성취 동기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어머니의 성취압력과 정서적 지지가 청소년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어머니의 성취압력과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청소년의 성취동기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성취압력($\beta=.30, p<.001$)과 정서적 지지($\beta=.26, p<.001$)의 순으로 청소년의 성취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 설명력은 11%였다. 한편 어머니가 지각한 어머니의 성취압력($\beta=.15, p<.05$)도 청소년의 성취동기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고 그 설명력은 3%였다. 그러나 어머니가 지각한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는 청소년의 성취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4. 어머니의 성취압력 및 정서적 지지 정도에 따른 집단별 청소년의 성취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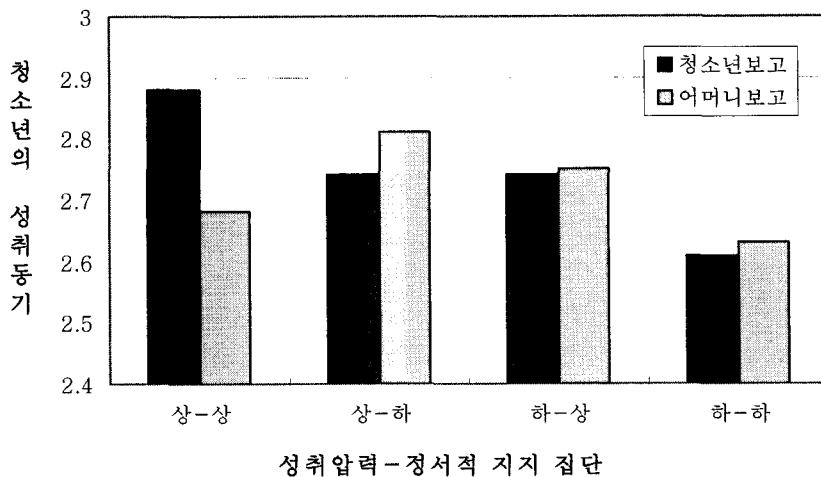
어머니의 성취압력과 정서적 지지 정도에 따라 청소년의 성취동기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어머니의 성취압력과 정서적 지지 각각의 평균을 기준으로 네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구체적으로, 청소년 보고의 경우, 어머니의 성취압력과 정서적 지지의 평균은 각각 2.23(SD=.44), 3.00(SD=.60)이었으며, 각 변인별로 평균 점수 이상은 상 집단, 평균 점수 미만은 하 집단에 속한다. 즉, 어머니의 성취압력과 정서적 지지 각각을 고려하여, 상-상(2.23이상과 3.00이상), 상-하(2.23이상과 3.00미만), 하-상(2.23미만과 3.00이상), 하-하(2.23미만과 3.00미만) 등 네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마찬가지로, 어머니 보고의 경우도 어머니의 성취압력과 정서적 지지의 평균 점수인 각각 2.18(SD=.36), 3.15(SD=.38)를 기준으로 하여, 상-상(2.18이상과 3.15이상), 상-하(2.18이상과 3.15미만), 하-상(2.18미만과 3.15이상), 하-하(2.18미만과 3.15미만) 등 네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표 3> 어머니의 성취압력 및 정서적 지지 수준에 따른 집단별 청소년의 성취동기

(N=241)

집단(성취압력-정서적 지지)		N(%)	M	SD	F(df)	Duncan
■ 청소년 보고	상-상	29(12.0)	2.88	.31	6.32*** (df=3/237)	A
	상-하	85(35.3)	2.74	.26		B
	하-상	63(26.1)	2.74	.28		B
	하-하	64(26.6)	2.61	.33		C
■ 어머니 보고	상-상	34(14.1)	2.68	.26	5.13** (df=3/237)	BC
	상-하	86(35.7)	2.81	.29		A
	하-상	49(20.3)	2.75	.29		AB
	하-하	72(29.9)	2.63	.32		C

p<.01, *p<.001



<그림 1> 어머니의 성취압력 및 정서적 지지 수준에 따른 집단별 청소년의 성취동기

각 집단의 분포를 살펴보면, 청소년 보고의 경우, 어머니의 성취압력과 정서적 지지가 모두 높은 상-상 집단은 29명(12.0%), 상-하 집단은 85명(35.3%), 하-상 집단은 63명(26.1%), 하-하 집단은 64명(26.6%)이었다. 어머니 보고에 의한 경우, 어머니의 성취압력과 정서적 지지가 모두 높은 상-상 집단은 34명(14.1%), 상-하 집단은 86명(35.7%), 하-상 집단은 49명(20.3%), 하-하 집단은 72명(29.9%)이었다. 청소년의 성취동기의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의 성취동기는 청소년 보고 ($F_{(3, 237)}=6.32, p<.001$)와 어머니 보고($F_{(3, 237)}=5.13, p<.01$)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표 3> 참조).

Duncan의 사후검증을 통해 네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해 본 결과, 청소년 보고의 경우 상-상 집단에 속한 청소년은 네 집단 가운데 가장 높은 성취동기를 보인 반면, 하-하 집단은 가장 낮은 성취동기를 보였다. 또한, 상-하 혹은 하-상 집단은 중간 정도의 성취동기를 가지고 있었다. 어머니 보고의 경우 상-하 집단에 속한 청소년은 상-상 집단과 하-하 집단에 속한 청소년에 비해 더 높은 성취동기를 나타내었으며, 하-상 집단은 하-하 집단보다 성취동기가 더 높았다. 반면에, 상-상 집단과 하-상 집단 간, 상-상 집단과 하-하 집단 간, 그리고 상-하 집단과 하-상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그림 1> 참조).

VI.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머니의 성취압력과 정서적 지지 및 청소년의 성취동기에서의 성차를 비롯하여 어머니의 성취압력과 정서적 지지가 청소년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또한, 어머니의 성취압력과 정서적 지지의 정도에 따라 구분된 각 집단 간 성취동기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그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성취압력 및 정서적 지지와 청소년의 성취동기에서의 성차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성취압력에서 성차가 나타나지 않은 연구결과(이은희, 2008)와 일치하나, 부모의 성취압력이 남자 청소년에게 더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들(전경진, 2007; 조혜미 등, 2007)과는 불일치한다. 본 연구결과는 최근 들어 언론매체를 통해 빈번히 보도되는 여성 인력의 눈부신 활약과 같은 사회적 변화에서 나타나듯이 한국의 전통적인 남아우월사상이 현대사회에서 점차 약화되는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새롭게 등장한 세대인 알파걸(alpha girls)(Kindlon, 2006)이 부모로부터 아들과 동등한 양육을 받고 성장하여 평등주의적 이념을 가지게 된 것과 같은 시대적 배경을 통해 이해된다. 또한,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에서도 성차가 나타나지 않은 본 연구결과는 학령기 남녀 아동에 대한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에서 성차가 발견되지 않은 연구결과(김순혜, 2003)나 어머니가 학령후기 남녀 아동에게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행동을 동일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결과(이선희 · 도현심, 2007)와 유사하다. 반면, 청소년기에 딸이 아들보다 가족의 정서적 지지를 더 많이 지각하고(이경주 · 신효식, 1997) 어머니의 애정적 거부를 덜 지각한다(안명희 · 최해림, 2004)는 연구결과들과는 차이가 있다. 바로 위에서 언급한 어머니의 성취압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결과는 현대 어머니들은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탈피하는 경향이 있어 자녀를 성에 따라 다르게 양육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이 지각한 성취동기에서도 성차가 발견되지 않은 본 연구결과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결과(김경옥, 1992)와는 일치하나 남자 중학생이 여자 중학생보다 높은 성취동기를 나타냈다는 연구결과(민숙정, 1990)와는 일치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성 구분이 명확해지는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전통적인 여성상에 반하는 성취행위가 딸에게는 억압되고 아들에게는 장려되었던 과거와 달리, 최근의 사회적, 문화적 변화로 인해 가정에서 아들과 딸이 동등하게 양육되는 과정에서 남녀 청소년의 성취동기에도 성차가 사라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성취압력은 성취동기에 대해 정서적 지지 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영향력을 보였으며, 어머니 보고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취압력만이 성취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성취지향적 양육태도가 부모의 사회적 지지보다 학령후기 아동의 성취동기를 높이는데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이경님, 2006) 및 부모의 성취압력이 부모의 사회적 지원보다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의 숙달목표를 높이는데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황혜연, 2006)를 지지한다. 이는 권위적인 부모가 청소년 자녀의 학업활동에 관심을 보이고 관여하면 자녀의 학업적인 성공은 더욱 촉진된다는 연구결과(Steinberg et al., 1992)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즉, 정서적 지지와 달리 성취압력은 자녀의 학업활동에 관여하는 태도를 포함하고 있어 자녀의 성취동기 향상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문화적 측면에서도 이해가 가능하다. 동양의 가정에서는 대체로 온정성이 부족하고 부모에게 복종을 중시하는 권위주의적 태도가 지배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환경 속에서 어머니의 지지적인 태도보다는 권위주의적으로 성취를 요구하는 태도가 자녀의 성취동기를 높이는 데 더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을 수 있다. 더욱이 서양 문화권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어머니의 성취압력이 자녀에 대한 애정과 관심의 표현으

로 받아들여져(박영신 · 김이철, 2000; Rohner & Pettengil, 1985) 이러한 영향이 극대화되어 나타났을 수 있다.

그러나, 양 변인간의 관계가 청소년이 지각한 경우에 더 높게 나타난 점은 흥미롭다. 이러한 결과는 성취압력과 성취동기 모두 동일한 평가자에 의해 보고됨으로써 양자 간의 관계가 다소 과장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접근할 수도 있겠으나,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이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행동에 비해 청소년의 발달결과와 보다 더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선행 연구결과들(윤지은, 2003; 정운주, 2002)과 일맥상통한다. 이는 어머니 스스로 평가한 성취압력이나 정서적 지지가 그 실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내포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가자에 따라 서로 다른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으로서, 이는 연구방법론적 측면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쟁점으로 보인다.

어머니의 성취압력 및 정서적 지지와 청소년의 성취동기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어머니의 성취압력이 청소년의 성취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학업동기가 높은 중학생이 부모의 성취압력을 높게 지각하였고(전경진, 2007), 부모의 높은 성취압력이 고등학생의 높은 성취동기와 관련되었던 연구결과(김경옥, 1992)와 일치한다. 또한 부모의 성취압력이 학령후기 아동의 숙달집근목표와 수행집근목표를 높이고(신지연, 2007) 고등학생의 숙달목표(황혜연, 2006)와 사회지향적 성취동기(박재현, 2004)를 높인다는 연구결과들과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이는 어머니가 높은 성취를 기대하고 적절한 통제를 가할 때 청소년의 성취동기는 높아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자칫 간섭과 강요 등 부정적으로 지각될 수도 있는 어머니의 성취압력이 한국에서는 자녀에 대한 온정과 관심으로 받아들여져(박영신 · 김이철, 2000; Rohner & Pettengill, 1985) 성취동기를 높이는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가 청소년의 성취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가 고등학생(이운경 · 도현심, 2005)과 학령후기 아동(이경님, 2006)의 성취동기를 높이는 것으로 보고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와 유사하게,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성취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들(박영신 · 김이철, 2000; 홍성훈 · 도현심, 2002)과도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청소년 자녀를 정서적으로 보살피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수록 자녀는 안정감을 느끼고 외부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게 되면서 보다 높은 단계의 성취 욕구를 계발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성취압력 및 정서적 지지의 정도에 따라 구분된 집단 간에 청소년의 성취동기에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성취압력 및 정서적 지지의 경우, 상-상 집단, 상-하 혹은 하-상 집단, 하-하 집단 순으로 성취동기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통제적이고 온정적인 양육을 할 때 자녀의 성취동기가

높은 것으로 보고된 대부분의 연구결과들(박현정 · 이경님, 2005; 홍성훈 · 도현심, 2002; Crockenberg & Litman, 1990; Weiss & Schwartz, 1996)과 일치하였다. 즉, 부모가 자녀의 성취를 강조하는 단호한 태도를 취함과 동시에 정서적으로는 온정적이고 수용적으로 지지해줄 때 자녀의 성취동기가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양육행동은 Maccoby와 Martin(1983)의 네 가지 양육행동 유형 가운데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촉진하는 양육행동 유형으로 잘 알려진 권위있는 유형(공경혜, 2003; 신영아, 2007; 임성윤, 2005; Steinberg et al., 1994)과 가장 유사하다.

한편, 어머니 보고에 의한 경우, 상-하 집단이 상-상 집단과 하-하 집단보다 더 높은 성취동기를 가지고 있었으며, 하-상 집단은 하-하 집단보다 성취동기가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 스스로 청소년 자녀에게 성취압력을 강조한다고 여길 때, 즉 권위적으로나 방임적으로 양육할 때보다 권위주의적으로 양육할 때 자녀의 성취동기가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허용적 양육행동 집단이 방임적 양육행동 집단보다 더 높은 성취동기를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이, 동일한 연구대상에 관한 연구 결과가 보고자에 따라 다르게 발견된 상황에서, 양자의 결과를 서로 다른 측면에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다만, 여기서는 청소년 보고 및 어머니 보고에 따른 연구결과 가운데 어느 편이 선행 연구결과와 보다 더 일치하는지에 근거하여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보고에 의한 연구결과가 선행 연구결과와 보다 더 일치하고 있으며, 이는 자녀의 지각이 부모의 지각보다 자녀의 발달결과를 설명하는 데 타당도가 더 높다는 연구결과들(김성연, 1981; 윤지은, 2003; 정윤주, 2002)과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교육이나 상담 등의 프로그램 진행 시 부모와 함께 자녀를 참여시키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모로 하여금 자녀가 지각하고 있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인식하게 함으로써, 부모 스스로 자신의 양육태도를 되돌아보게 하고 자신의 양육방식을 보다 바람직하게 수정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청소년 및 어머니 보고 모두에서 하-하 집단이 네 집단 중 청소년의 성취동기가 가장 낮게 나타난 결과는 부모의 통제성과 수용성이 모두 낮은 무관심한 양육을 받고 자란 청소년은 학교에서 낮은 성취지향성을 보인다는 선행 연구결과들(Lamborn et al., 1991; Pulkkinen, 1982)과 유사하다. 이는 청소년기에 자녀와 갈등을 피하기 위해 간섭하지 않고자 하는 회피적 부모들이나 자녀에게 어떻게 해 주어야 할지 몰라서 내버려 둔다는, 자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모들이 경청해야 할 결과이기도 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관련하여 부모의 성취압력과 정서적 지지 모두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즉, 청소년 자녀의 성취동기를 높이고자 하는 부모는 자녀에게 권위주의적으로 성취만을 기대하거나

혹은 자녀에게 적절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따뜻한 관심만을 보이기보다는 이 두 가지를 적절히 함께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또한 부모의 성취압력 및 정서적 지지와 청소년의 성취동기에서 성차가 나타나지 않은 결과는 과거와 달리 자녀의 성에 따라 차이를 두고 성취를 강조하던 시대가 지나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후속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제한점에 근거하여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첫째, 본 연구는 중학교 2학년의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다른 발달단계에서는 어머니의 성취압력 및 정서적 지지와 같은 요인이 청소년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고등학생을 포함한 여러 연령층을 대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주양육자인 어머니만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나 아버지의 영향력이 점차 강조되는 점을 고려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아버지 또한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청소년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부모-자녀관계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았으나, 그 밖의 개인내적 특성변인 및 가정환경 요인이나 또래, 학교, 사회 등 다양한 요인들이 청소년의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성취동기의 선행요인으로 좀 더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성취압력이 청소년의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취동기 이외의 청소년의 행복이나 자신감 혹은 생활만족도와 같은 심리적 안녕감(well-being) 등 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보지 못했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부모의 성취압력이 자녀의 발달결과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가능성이 제기되는 점(김문주, 1991; 박수자, 1996; 손낙주, 1997; 정지선, 2007)에 근거할 때 후속 연구에서는 성취동기와 함께 다양한 발달결과 변인을 투입하여 부모의 성취압력이 자녀에게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우선, 본 연구는 우리 사회의 부모역할과 관련하여 내용상 익숙한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연구가 수행되지 않은 성취압력과 정서적 지지를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무엇보다도, 양자를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발견된 결과는 청소년 자녀의 부모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 청소년의 성취동기를 증진할 수 있는 양육행동에 대한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어머니의 성취압력 및 정서적 지지와 청소년의 성취동기의 성차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사회에 널리 확산된 남녀평등의식이 부모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성취동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동시에, 어머니의 행동에 대해 어머니 자신은 물론 청소년도 응답하도록 함으로써, 부모의 행동에 대한 지각이 부모-자녀 간에 다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의 지각보다 청소년의 지각이 청소년의 발달결과에 보다 커다란 영향력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참 고 문 헌】

- 공경혜(2003). 어머니의 자아개념 및 양육태도와 자녀의 자아개념과의 관계 :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중심으로. 광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혜경(2004). 낙관성이 진로태도성숙 및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성취동기와 자아강도를 매개변인으로. 가톨릭대학교 심리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옥(1992). 부모의 성취압력이 학생의 정의적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기정(1984). 학업성취와 지각된 양육태도가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문정(2003).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과 아동의 행동문제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문주(1991). 시험불안도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심리적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보경(2001). 이혼 가정의 학교-가정 관계, 아동의 성취기 및 학교생활 적응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연(1981). 부모의 양육태도와 어린이의 자아개념 및 학업성적과의 상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순혜(2003). 아동의 기질 및 양육태도와 정서지능과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7(4), 1-12.
- 김의철·박영신(1999). 한국 청소년의 심리 행동특성의 형성: 가정, 학교, 친구, 사회영향을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13(1), 99-142.
- 김지혜(2009).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 애착, 자아존중감, 성취동기와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심(2002). 자아개념, 부모의 성취압력, 교사행동과 학습동기의 관계 연구. 교육연구, 14(1), 175-193.
- 김현정(2000). 고등학생의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 부모의 직업유형, 성역할 정체감, 성취동기 및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숙정(1990).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청소년기의 성취동기.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수자(1996). 지각된 부모의 성취압력과 아동의 학습소의 및 대응행동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신·김의철(2000). 부모-자녀관계 변화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교육학연구, 38(2), 109-146.
- 박영신·김의철·정갑순(2004). 한국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와 성취에 대한 종단연구: 자기효능감과 성취동기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10(3), 37-59.
- 박재현(2004).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성취압력 및 고등학생의 성취동기 지향성 간 인과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원(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현정·이경님(2005). 어머니의 자기효능감과 양육행동 및 아동의 성취동기가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4(4), 547-559.
- 성영혜(1993). 부모의 사회적 지지 체계가 아동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손낙주(1997). 가정환경, 아동의 자아평가와 학습된 무기력감간의 인과관계.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영아(2007). 걸음마기 아동의 순응행동에 관련된 변인들 : 아동의 성, 연령,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요구내용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지연(2007). 학습자가 인지한 사회심리적 환경, 학습동기, 학습전략과 학업 부정행위 및 학업 성취도와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명희·최해림(2004). 청소년의 모-자녀 관계와 청소년의 정서적 적응. 한국심리학회지, 16(4), 687-703.
- 오성심·이종승(1982).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정의적 특성의 관계. 연구노트, 한국행동과학연구소, 11(1), 1-15.
- 오정현(2005). 자녀의 학교 급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성취압력에 관한 연구: 양육신념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영섭(1988). 학업성취와 지각된 양육태도가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지은(2003).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모-자간 갈등과 남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님(2006). 개인변인과 부모변인이 아동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5), 161-174.
- 이경은(2005). 부모와의 애착과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성취동기와의 관계.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주·신효식(1997).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원 및 지지유형 수준에 따른 부적응.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15-26.

- 이남기(1995). **학업성취와 지각된 양육태도가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효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선희 · 도현심(2007) **취업모의 직업만족도 및 양육행동과 남녀 아동의 문제행동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8(5)**, 269-284.
- 이운경 · 도현심(2005)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관련된 변인들: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어머니의 기대 및 정서적 지지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아동학회지*, **26(3)**, 43-59.
- 이은희(2008). **목표지향성과 성격 및 부모의 성취압력과의 관계**.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성윤(2005). **중학생이 지각한 가정환경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경진(2007). **학습자의 정의적 특성에 따른 성취 압력과 학업 성취의 관계**.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복희 · 박경빈 · 전미란(2008). **과학에 대한 태도, 성취동기, 또래관계, 부모의 과학영재교육에 대한 태도 분석**. *영재교육연구*, **18(3)**, 443-464.
- 정갑순(2002). **부모-자녀 관계와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학업 성취간의 관계에 대한 종단적 분석**.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미리(1985). **부모의 자녀에 대한 성특성 기대 및 양육태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소희(2005).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자아탄력성, 학업능력지각 및 스트레스와의 관계**.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운주(2002). **자녀 양육 방식에 대한 청소년과 어머니의 지각 차이와 청소년의 적응**. *대한가정학회지*, **40(9)**, 109-125.
- 정지선(2007). **초등학교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성취압력과 자기 효능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혜미 · 김성실 · 임혜경 · 한성현 · 송미라 · 손부순(2007). **부모의 성취압력이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대한위생학회지*, **22(1)**, 67-74.
- 조희진(1982).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내외적 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연진(2009). **아동이 지각한 부모기대, 자아개념, 성취동기와의 관계**. 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성훈 · 도현심(2002). **모-자녀관계 및 자아존중감과 청소년의 성취동기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12)**, 145-157.
- 황혜연(2006). **교사효능감 및 부모자녀관계변인과 고등학생의 학습동기, 학습전략,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lper, T. G., Greenberger, E.(1967). **Relationship of picture structure to achievement motivation in college wome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362-371.
- Baumrind, D.(1973). **The development of instrumental competence through socialization**. In A. D. Pick (Ed.), *Minnesota symposium on child psychology* (Vol. 7, 3-46).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Bee, H.(2000). *The developing child. (9th ed.)* Boston: Allyn & Bacon.
- Block, J. H.(1983). **Differential premises arising from differential socialization of the sexes: Some conjectures**. *Child Development*, **54(6)**, 1335-1354.
- Bronstein, P., Ginsburg, G. S., & Herrera, I. S.(2005). **Parental predictors of motivational orientation in early adolescence: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4(6)**, 559-575.
- Burhans, K. K., & Dweck, C. S.(1995). **Helplessness in early childhood: The roll of contingent worth**. *Child Development*, **67**, 606-620.
- Castenell, L. A.(1983). **Achievement motivation: An investigation of adolescents' achievement patterns**.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20(4)**, 503-510.
- Cobb, S.(1979). **Social support and Health Through the life course**. In Matilda, M. Riley(ed), *Aging from birth to death: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s*, Boulder: Westview press.
- Connel, J. P., Spencer, M. B. & Aber, J. C.(1994). **Educational risk and resilience in Africa-American youth: Context, self, action, and outcomes school**. *Child Development*, **65(2)**, 493-506.
- Crockenberg, S. B. & Litman, C.(1990). **Autonomy as competence in 2-year-olds: Maternal correlates of child defiance, compliance, and self asser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6(6)**, 961-971.
- Field, W. F.(1951). *The effects on thematic apperception of certain experimentally aroused needs*. Unpublished Ph. D. thesis. Univ. of Maryland.
- French, E., & Lesser, G. S.(1964) **Some characteristics of the achievement motive in women**.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8**, 119-128.
- Glasgow, K. L., Dornbusch, S. M., Troyer, I., Steinberg, I., & Ritter, P. L.(1997). **Parenting style, adolescents' attributions, and educational outcomes in nine heterogeneous high schools**. *Child Development*, **68(3)**, 507-529.
- Gonzalez, A., & Wolters, C. A.(2006). **The relation between perceived parenting practices and achievement motivation**. *Journal of Research in Childhood Education*, **21(2)**, 203-217.

- Goyette, K., & Xie, Y. (1999). Educational expectations of Asian American youths: Determinants and ethnic differences. *Sociology of Education*, 72, 22-36.
- Hao, L., & Bonstead-Bruns, M.(1998). Parent-child differences in educational expectations and the academic achievement of immigrant and native students. *Sociology of Education*. 71(3), 175-198.
- Hermans, H. J.(1970). A questionnaire measure of achievement motivatio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54(4), 353-363.
- Kenny, M. E.(1994). Quality and correlates of parental attachment among late adolescent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2(4), 399.
- Kindlon, D.(2006) 최정숙 역(2007). *알파결*. 서울: 미래의 창.
- Lamborn, S. D., Mounts, N. S., Steinberg, L., & Dornbusch, S. M.(1991). Patterns of competence and adjustment among adolescents from authoritative, authoritarian, indulgent, and neglectful families. *Child Development*. 62(5), 1049-1065.
- Luster, T. & Okagaki, L(1993). 박성연 · 도현심 · 정승원 공역 (1996). *부모-자녀관계*. 서울: 학지사.
- Luthar, S. S., & Becker, B. E.(2002). Privileged but pressured? A study of affluent youth. *Child Development*, 73(5), 1593-1610.
- Maccoby, E. E., & Martin, J. A.(1983). Soci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Parent-child interaction. In E. M. Hetherington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Vol. 4, 1-102). N.Y.: Wiley.
- McClelland, D.(1953). *The achievement motive*. N.Y.: Appleton Century Crofts.
- Moran, P. B., & Eckenrode, J.(1991). Gender differences in the costs and benefits of peer relationships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6(4), 396-409.
- Murray, H. A.(1938). *Explorations in personality: A clinical and experimental study of fifty men of college age*. N.Y.: Oxford University Press.
- Pulkkinen, L.(1982). Self-control and continuity from childhood to late adolescence. In P. Baltes & O. G. Brim Jr. (Eds.), *Life span development and behavior*(Vol. 4, 64-107). N.Y.: Academic Press.
- Rigby, C. S., Deci, E. L., Patrick, B. C., & Ryan, R. M.(1992). Beyond the intrinsic-extrinsic dichotomy: Self-determination in motivation and learning. *Motivation and Emotion*, 16(3), 165-185.
- Rohner, R. P., & Pettengill, S. M.(1985). Perceived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and parental control among Korean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56(2), 524-528.
- Saavedra, J. M.(1980). Effects of perceived parental warmth and control on the self-evaluation of Puerto Rican adolescent males. *Behavior Science Research*, 15, 41-54.
- Schaefer, E. S.(1959). A circump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226-235.
- Spera, C.(2006). Adolescents' perceptions of parental goals, practices, and styles in relation to motivation and achievement.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6(4), 456-490.
- Stein, A. H., Bailey, M. M.(1973). The socialization of achievement orientation in females. *Psychological Bulletin*, 80, 345-366.
- Steinberg, L., Lamborn, S. D., Dornbusch, S. M., & Darling, N.(1992). Impact of parenting practices on adolescent achievement: Authoritative parenting, school involvement, and encouragement to succeed. *Child Development*, 63(5), 1266-1281.
- Steinberg, L., Lamborn, S. D., Darling, N., Mounts, N. S., & Dornbusch, S. M.(1994). Over-time changes in adjustment and competence among adolescents from authoritative, authoritarian, indulgent, and neglectful families. *Child Development*, 65, 754-770.
- Stevenson, H. W., Lee, S., Chen, C., Lummis, M., Stigler, J., Fan, L., & Ge, F.(1990). Mathematics achievement of children i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Child Development*, 61(4), 1053-1066.
- Stevenson, H. W., Lee, S. Y., & Stigler, J. W.(1986). Mathematics achievement of Chinese, Japanese, and American children. *Science*, 231(4739), 693-699.
- Thompson, L., & Walker, A. J.(1989). Gender in families: Women and men in marriage, work, and paren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4), 845-871.
- Valery, J. H., O'Connor, P., & Jennings, S.(1997). The nature and amount of support college-age adolescents request and receive from parents. *Adolescence*, 32(126), 323-337.
- Weiss, L. H., Schwartz, J. C.(1996).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types and older adolescents' personality, academic achievement, adjustment, and substance use. *Child Development*, 67(5), 2101-2114.

접수일 : 2009년 05월 15일

심사일 : 2009년 07월 28일

심사완료일 : 2009년 10월 26일